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국회토론회 결과보고(2017.04.03)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국회 토론회에서, 공통·통합과목 중심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노웅래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함께 지난 3월 20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 ▲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지만, 교육부는 여러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수능개편안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음.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설계의 세 방향은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 △시험 범위를 공통·통합과목 중심으로 전환, △국어·수학·영어와 같은 도구 과목보다 사회·과학 교과목의 비중을 높이는 것임.
- ▲ 【개선방향 1】 현재 수능제도는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가 뒤섞인 전 세계에 유례없는 상태임. 2021학년도 수능은 △학생의 과도한 입시 고통 감소,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4차 산업혁명 대비 역량 교육 등을 위해서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해야 함.
- ▲ 【개선방향 2】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시험 범위를 공통·통합과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 【개선방향 3】 2021학년도 수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어·수학·영어와 같은 도구 교과목의 비중을 약화하고, 사회·과학의 비중을 강화해야 함.

▲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교육정책이 될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은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드러내는 정책이므로, 모든 대통령 후보는 교육 공약에서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하며, 교육부도 서둘러 논의의 과정을 열린 장에 펼쳐 놓고 초·중등 교육을 본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타당한 수능개편안을 확정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지난 3월 20일 노웅래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함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제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수능입니다. 올 초 정부는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확정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능제도는 근본적인 학교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교육 분야 변화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제 발표될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은 반드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학교 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김경범 교수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연구소장이 발제하고,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 △한국교육개발원 박경호 부연구위원, △잠실여고 안연근 교사, △교육부 대입제도과 김태훈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의 필요 때문에 출발하였지만, 교육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육부는 여러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수능개편안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음.

2013년 8월 27일, 교육부(당시 서남수 장관)는 현재와 같은 문·이과가 분리된 형태의

수능체제는 미래 사회의 융·복합 인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수능 체제의 근간을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육과정으로는 융합안 수능을 바로 시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통 사회’, ‘융합 과학’ 과목 등의 교과서가 없었고, 교육과정의 양도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융합형 수능 제도’와 호응하는 ‘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을 먼저 착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앞서 2015년 9월 23일 확정 발표된 ‘2015 (통합형)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애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은 교육과정 총론 과정이 완성된 2014년에 같이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과열 조짐에 놀란 교육부는 이 논의를 덮어버린 채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기되었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은 결국 2017년, 3년 예고제에 의해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올해에 이르러서야 확정안 발표가 예정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수능개편안 발표를 늦추게 되면서, 수능에 대한 변화 요구는 급격하고 시행 시점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모순적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토론회 발제자인 안상진 연구소장은 교육부가 이를 핑계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 다듬는 방식의 개선안을 선택한다면, 이번 개편안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그 흐름을 좇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현실에 안주하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수능체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길러진 아이들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 아니 근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교실 속에서 살아나도록 하는데 개편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설계의 핵심은 교육과정-수능-대학입시가 일관된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개선의 시작은 수능이 되어야 함.

발제자인 김경범 교수는 이번에 발표될 수능개편안은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능제도는 수능만의 단독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등 여러 가지와 한 줄기로 연결된 상황이고, 이 중 어느 하나만을 바꾸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막힐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김경범 교수는 과감히 이번 수능제도부터 그 고리를 끊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능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안상진 연구소장도 수능은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

에, 2013년 당시에 당장 수능을 개편하지 못하고 교육과정 개편부터 시작했다면, 바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가장 충실한 융합형 수능안이 이번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초소양을 강조했다면 수능에도 당연히 그 방향과 취지가 담겨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모형 연구 책임자였던 박경호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박경호 부연구위원은 수능과 같은 ‘학교 밖 평가’의 영향력보다는 ‘학교 내 평가’인 과정중심평가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 축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도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학생 약 55만 명 가운데 대입전형에서 수능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22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확대에 의해 사실상 60% 이상의 학생은 수능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실 현장은 수능에 매몰되어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발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획기적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설계의 세 방향은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 △시험 범위를 공통·통합과목 중심으로 전환, △국어·수학·영어와 같은 도구 과목보다 사회·과학 교과목의 비중을 높이는 것임.

사교육걱정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표1]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표1]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교과	수능 시험 범위		평가형식	문제형식
	공통과목	일반선택		
국어	공통국어	(학생부 교과)	9등급 절대평가 도입	
영어	공통영어	(학생부 교과)	9등급 절대평가(시행중)	
수학	공통수학	(학생부 교과)	9등급 절대평가 도입	
사회	통합사회	1과목 선택	9등급 절대평가 도입	통합사회 : 논·서술형 도입 검토
과학	통합과학	1과목 선택	9등급 절대평가 도입	통합과학 : 논·서술형 도입 검토
한국사	한국사		9등급 절대평가(시행중)	

사교육걱정이 제안하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설계의 세 방향은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시험 범위를 공통·통합과목 중심으로 전환, △국어·수학·영어 도구 과목보다 사회·과학 교과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개선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선방향 1】** 현재 수능제도는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가 뒤섞인 전 세계에 유례없는 상태임. 2021학년도 수능은 △학생의 과도한 입시 고통 감소,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4차 산업혁명 대비 역량 교육 등을 위해서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해야 함.

지금 수능제도는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나머지 과목인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은 상대평가로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섞어서 시험 보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김경범 교수는 이번 수능개편안에 있어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평가로 갈 것인지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교육걱정도 이번 수능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의 첫 번째 원칙은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상진 소장은 발제를 통해 수능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이제 더 이상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는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며, 문제가 어려우면 더 맞히기 위한 경쟁을, 문제가 쉬우면 틀리지 않기 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다른 친구보다 잘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 없게 하는 평가라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창의성, 협동심, 바른 인성 등은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옆 친구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서열화해서 줄 세우는 것이 평가의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시험을 잘 보게 되면 큰일 나는 시험이 상대평가입니다. 줄 세우기가 목적이 되면 문제 유형 또한 객관식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오지선다형의 객관식만으로는 깊이 있는 고차원적 사고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표준화시험인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지금처럼 모든 학생을 세밀하게 한 줄로 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평가 위주의 현재 수능제도는 학교 교육의 목표와 수단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상대평가면 학교 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을 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발제자 김정범 교수도 주목해야 할 수능 개편안의 첫 단추가 절대평가라고 했습니다. 이번 발표될 수능개편안이 변화 없이 상대평가를 포함한다면 사실상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능이 될 것이고, 그렇게 상대평가로 포함해서 출발하는 순간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쟁이 완화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의미한 절대평가가 되어 경쟁의 강도가 확실히 완화되려면 1등급에 대한 비율이 의미 있게 늘어나야 하고, 5등급 정도의 절대평가를 통해 상위 10%~20% 학생들에게 더는 세밀한 변별력을 요구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 속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시험 문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러한 상대평가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게임이고, 최후 1명이 남을 때까지 아이들을 무한경쟁하게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되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이제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번 수능개편안을 통해 상대평가 체제를 허물고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합의했습니다.

□ **【개선방향 2】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시험 범위를 공통·통합과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에 반영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은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공통과목·통합과목 중심의 수능 시험 범위 조정입니다. 수능은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평가입니다.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과 목표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에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교육과정 개정의 첫 번

째 핵심 사항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 함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취지를 살려 수능 시험 범위도 공통과목·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지필식 평가에 합당한 과목이 아니라면, 논·서술형 평가의 도입도 고려할 만합니다. 공통과목·통합과목 중심의 수능 시험 범위 조정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1학년 과목으로 수능의 범위를 제한된다면, 오히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보다 자유롭게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은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의 경우 EBS 교재 문제풀이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교 교육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2·3학년 선택과목이 수능에 들어가지 않으면, 1학년 공통·통합과목을 2학년과 3학년 때도 무한반복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안상진 소장은 이를 기우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성화되어 있고,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모집단위에 맞는 선택과목의 성적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수능만을 위해 2·3학년 선택과목을 포기하고 수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개선방향 3】 2021학년도 수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어·수학·영어와 같은 도구 교과목의 비중을 약화하고, 사회·과학교과목의 비중을 강화해야 함.**

국어·영어·수학 같은 과목은 그야말로 학문을 하거나 직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도구적’ 성격을 갖는 과목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콘텐츠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러한 콘텐츠 중심의 사회와 과학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수능 또한 당연히 그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어·영어·수학 등의 도구 과목 중심의 교육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능도 도구 과목인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중을 낮추고, 콘텐츠 중심의 과학, 사회 과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 원점수의 합은 300점인 반면 탐구과목인 사회와 과학은 선택하는 2과목을 합해도 100점입니다. 국어·수학·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 탐구는 9과목 중 2과목, 과학 탐구는 8과목 중

2과목을 택하게 했지만, 수학의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마지막 3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배우는 모든 과목을 시험 보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과 수학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배울 수 없는 과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방치하여, 그 여파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수학 선행학습 열풍까지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영어의 도구 교과목의 비중을 약화하고, 실제 적성에 따른 전공과 관련된 사회·과학의 비중을 강화하는 변화가 필요 합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수능 시험 범위에 사회와 과학 선택과목에서 각각 1과목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성에 따른 전공 관련 탐구 영역의 중요성을 높이고, 국어·수학·영어가 아니라 사회와 과학에서 변별력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어·수학·영어의 2·3학년 선택과목은 수능의 과목이 아니라, 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을 반영하여 선발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대학에서 필수로 요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학의 학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제 과도한 변별력을 요구하는 패러다임은 전환되어야 하며, 공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학교 밖 평가인 대학별 고사 등은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번 수능개편안에서 전 영역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면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에서 상위권 일부 대학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 해당 대학의 대학별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상진 연구소장은 9등급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8개 영역을 모두 반영한다면 상위권 대학도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표1]에서 보았듯이 사교육걱정은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수험생이 응시해야 할 영역을 8개 영역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한국사와 영어에서 9등급 절대평가가 도입된 상황에서,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여 공통국어·공통수학·통합사회·통합과학에 사회와 과학에 선택과목을 하나씩 더 추가하게 되면, 총 8개 과목에 9등급 절대평가 도입으로 최대 72등급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전 과목 1등급이라면 등급 합이 8이 되고, 발생할 수 있는 등급 합의 경우의 수는 무려 $72-8+1=65$ 가지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응시 영역의 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영역에서 중복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수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여기에 모집 단위별로 영역별 가중치를 허용한다면, 수능의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이 요구하는 변별력을 상수로 보고 부족한 변별력을 메꿔 주겠다

는 생각이 아니라, 현재의 변별력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시전형에서의 대학별고사 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법제화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는 선발 경쟁에서, 뽑은 학생을 잘 교육시키고 그 결과로 경쟁하는 교육 경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교육정책이 될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은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드러내는 정책이므로 모든 대통령 후보는 교육 공약에서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하며, 교육부도 서둘러 논의의 과정을 열린 장에 펼쳐 놓고 초·중·등 교육을 본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타당한 수능 개편안을 확정해야 함.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대입제도과 김태훈 사무관은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이 7월 발표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수능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빠르게 축소할 수 있지만, 변별력의 문제와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있음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상진 연구소장은 2014년부터 수능개편안 발표를 촉구하였는데 발표 3~4개월을 앞둔 현시점에도 여전히 공론화할 수 있는 개편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수능개편안에 대한 논의의 과정이 지난 3년간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과 이해관계에 따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교육부는 서둘러 안을 제시하고 열린 장에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실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정적인 수능 개편 방안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현실을 크게 변화시킬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무리를 주지 않은 수능 개선안을 선택하고자 했다면, 2017학년도 수능 체도를 고칠 이유도, 2년에 걸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밟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5월 공청회를 통해 7월 발표하겠다고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시점상 새 정부가 발표하는 첫 번째 대학입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는 정책이 되도록 이번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은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적당히 후퇴하면 국민은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 희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부가 내어놓을 수능개편안은 이해관계를 적절히 타협하는 그런 안이 아니라, 새 정부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시대적 요구를 피해 가는 개편안이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학교 교육 회복을 위한 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더 이상 개편안 제시를 미루지 마십시오.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서둘러 가능한 안을 발표하고 열린 장에서 함께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2021 수능개편안의 핵심은 절대평가 전환입니다. 이미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한국사와 함께 수학, 국어, 과학, 사회 과목도 절대평가로 전환하십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창의성, 협동심, 바른 인성 등은 수능 상대평가체제에서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3.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시험 범위를 공통·통합과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2021학년도 수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어·수학·영어와 같은 도구 교과와 비중을 약화하고, 사회·과학 교과와 비중을 강화해야 합니다.
4. 교육부와 대학은 상대평가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을 줄 세우려 한다는 ‘과도한 변별력 패러다임’을 이제 버리십시오. 대학이 학생 선발에 지나친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는 이 패러다임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교육을 왜곡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2017. 04. 0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